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71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두산봉·은월봉

강경민 기자 gmkang@hallailbo.co.kr

입력 : 2003. 11.07. 00:00:00



탐사단이 찾아나선 '한라대맥'은 제주의 자연과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행로이다. 탐사의 중심에는 오름이 있다. 제주섬 동쪽 끝자락 우도에서 출발한 대맥탐사는 물으로 올라와 성산 식산봉과 종달 지미봉에 이어 본격적인 오름탐사에 올랐다. 구좌읍 종달리, 성산읍 시흥리 지경의 두산봉 탐사는 9월 27일, 은월봉 탐사는 10월 11일 실시됐다.

◇두산봉

두산봉은 정상을 중심으로 북쪽은 종달리, 남쪽은 시흥리를 이룬다. 오름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두산봉은 정상까지 목장으로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말 방목현상이 나타난다. 이 오름은 '멀미오름'이라고도 부른다. 땅끝에 있어 '말 미(尾)', 그 모양이 곡식 따위의 분량을 재는 그릇인 '되'와 같다고 해서 '말(斗)', 동물의 머리와 같다고 해서 '머리(頭)', 그리고 말을 방목하기에 최적지라는 데서 '말(馬)'를 붙였다고 전해진다.

두산봉은 이중화산이다. 화산체가 두번에 걸친 화산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화산체 중심부에 2차적으로 형성된 알오름이 자리잡고 있다. 알오름의 정상에도 묘들이 들어서 있다. 오름 정상에 오르면 지미봉과 종달리, 우도, 시흥리, 식산봉, 일출봉 등 제주 동부의 육지와 해안, 오름과 들판을 조망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두산봉은 지미봉과 더불어 항해 때 목표물로 이 되기도 했다. 이와관련해 '한국연안수로지'(1985)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높고 낮은 두 봉우리가 있는데 높은 꼭대기는 높이 146m로서 지미봉 남서쪽 2.6km 되는 곳에 있으며 그 남서쪽 약 370m에 높이 136m인 낮은 봉우리가 있다. 이 두 봉우리 사이는 분화구로서 북서로 열려 있으며 낮은 봉우리의 동쪽은 험한 낭떠러지로 모두 좋은 목표이다.'

알오름 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피뿌리풀이 자생하고 있다. 피뿌리풀은 다년초로 세계적으로는 한국, 중국, 몽골 등지에 분포하며 국내에는 개마고원 일대와 제주도 중산간 지역, 특히 동쪽 오름에만 주로 분포하는 북방계 식물이다. 한때 아부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등에 많은 개체가 분포했으나 꽃이 아름답고 희소성 때문에 무분별하게 도채, 육지부로 반출되면서 자생지를 잃어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반출된 피뿌리풀은 인간의 물지각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해 일생을 마감하고 있다. 강영제 위원은 "피뿌리풀은 고위도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이 제주도에 남아 있는 유존식물로 식물지리학적으로 학술적 가치 뿐만아니라 원예적으로도 개발

가치가 높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소수의 개체만이 생육하고 있을 뿐"이라고 아쉬워했다.

두산봉 분화구 내 알오름과 화구륜 사이는 경작지로 개발되어 당근과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다. 종달리 마을소식지(2001.1)는 '분화구에는 예전에 우마들의 생활 터전으로, 그 일부는 묘지로 이용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그 일부를 개간하여 밭과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 부근에는 초지를 조성하여 목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경작지를 지나 오름의 북~동~남면에 이르는 측면은 수십미터 높이의 낭떠러지가 형성되어 있다. 단애에 오르면 제주의 정서와 자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돌담 사이로 유채밭과 당근밭, 마을, 오름, 제주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제주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정광중 위원은 "급경사를 이루는 산자락의 아래쪽, 즉 동~남동 방향의 시흥초등학교와 주변부 들판의 해발고도는 대략 20m 전후이고, 단애 위에 솟아오른 남동쪽 정상부의 해발고도는 126.5m이다. 따라서 두산봉의 산자락은 주변 지역보다 대략 100여m 높이의 경사를 유지하면서 독특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했다. 탐사일행은 그 경관에 흠뻑 취해 한참동안 자리를 뜰 줄 몰랐다. 북~서 사면은 이와는 달리 완만한 구릉으로 되어 있다.

은월봉으로 향하는 길에 양천허씨 입도조 허손의 묘역을 찾았다. 묘역은 두산봉 아래 종달마을 방향의 '매망모르' 지경에 있는 자리잡고 있다. 그가 입도한 것은 이성계가 등극한 해인 1392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배의 몸이 되어 종달리에 적거하면서 훈학을 펴다고 한다.

◇은월봉

'한라대맥'의 장축을 따라 은월봉에 이르렀다. 두산봉과 용눈오오름 중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은월봉은 오름 모양이 넓은 들판에 달이 숨어 있는 격이라 해서 '은들오름, 운들오름'이라 불리었다고 전해진다. 흔히 윤드리오름이라고도 한다. 동쪽 능선이 가파른 편이고, 북동쪽으로 말굽형 굽부리가 형성되어 있다.

은월봉 주위는 '물징거와 고종달' 전설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서 종달리 선민들의 옛 고향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은월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설촌역사가 전해지고 있다. 그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은월봉 앞 평지인 '넙은드르'다. 이 평지의 '대머들'이라는 곳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는데 이 곳의 토질의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곁에 '물징거'라는 좋은 생수가 솟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달리 출신의 김승태씨(제주사대부고 교사)는 "마을 형성의 모태요 생활의 안식처인 오름의 의미를 잘 대변하는 윤드리오름은 뒤에 한라산을 비롯해 거미오름, 높은오름, 손지오름, 용눈이오름 등이 튼실한 보호자가 되고 있고, 곁에는 평평 쏟아지는 '물징거'를 껴안고 있으며, 그 앞에는 종달리의 모체를 이루었던 '넙은드르, 대머들' 지역을 품고 있으니 결코 외로운 오름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신영대 위원은 구좌읍 별판에서 동부 중산간 지대인 성산을 지역까지 나지막이 솟은 은월봉은 북녘 오름자락에서 바라보면 마치 거대한 날개로 무한한 비상을 앞둔 새의 형상이라고 풍수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신위원은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이상의 날갯짓이다"고 했다.

탐사단은 은월봉 주변에서 해수침투 감시관측을 위해 지하 암석을 시추한 현장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지하지질구조와 지하수 부존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나 시추과정에서 채취된 지하암석들이 지질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시공간과 예산 확보난에 부닥쳐 현장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전시·관리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자원이 사장되고 있다.

[전문가 리포트]오름, 지질학적 중요 연구대상

제주도는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크게는 하나의 산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백록담으로부터 해안선까지 이어지는 사면에는 지형적으로 독립된 소규모 구릉 내지 작은 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소규모의 작은 산들을 제주에서는 "오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제주의 여러 신화를 간직하면서 역사를 함께 하여 온 제주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오름들은 대부분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체이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며, 용암류에 관한 연구와 함께 제주도 형성사를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제주에서 오름이라 불리우는 360여개의 소규모 산체들은 지질학적으로 형성기원, 구성물질, 형태 및 모양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오름들 중의 대부분은 마그마의 스트롬볼리안 분화에 의해 형성된 분석구이며, 흔히 "송이(제주 고유어)"라 불리우는 기공이 많은 분석(신더 또는 스코리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증기-마그마 또는 증기 분화에 의해 형성된 것들로, 형태와 모양에 따라 마르, 응회환, 응회구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점성이 높은 조면암질의 마그마가 화구를 채우거나 화도 직상부에서 돔상으로 굳은 것을 용암원정구(lava dome)라 하는데, 산방산은 대표적인 예로 치밀한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조적인 운동에 의해 융기된 후 오랜 세월동안의 풍화와 침식에 의해 형성된 침식산체가 있다. 대부분의 오름들은 하나의 형성기원으로 간단히 설명되는 반면, 몇몇은 두 가지 이상의 형성기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도 있다.

개별 오름들의 모양과 형태에 관한 기하학적 고찰, 구성물질과 내부구조에 관한 조사, 형성기원에 관한 연구, 주변 용암류와의 시간적인 선후관계 추정, 오름과 동일한 기원의 마그마로부터 분출된 용암류의 구분, 소규모 화산체인 오름의 형성을 지배한 지구조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한다면 제주도 형성사를 추정하는 실마리들이 충분히 나타나리라 판단된다.

<정차연 위원/ 농업기반공사·이학박사>

[전문가 리포트]우리가 오름을 오를 때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산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등 인격도야의 장으로 생각하여 왔음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요즈음 우리 도내에서도 한라산국립공원과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오름들을 대상으로 하여 등산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관리되고 있지 않은 오름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주인은 오름의 자락에서 태어나서 오름을 주무대로 생활하다 오름의 품안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그만큼 오름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름을 안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을 찾음에 있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많은 느낌이 와닿는 오름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준비를 하는데 드는 시간을 아까워 하지말자. 그것은 내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록담을 몇시간에 다녀왔다, 몇 번 다녀왔다, 오름 몇 곳을 다녀왔다'라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오름을 찾는데 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가. 등산은 대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스포츠다. 오름을 찾을 때 만큼이라도 대자연에 동화되어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이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오름의 경관과 오름에 스며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음가득히 담아올 수 있도록 하자.

최근 한라일보사에서 '한라대맥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시리즈로 제주의 오름을 소개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최고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전문 탐사위원들 개개인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탐사에 임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름을 오를 것이다. 이같은 땀이 모여져 제주인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제주인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에도 일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문필 위원/ 제주대산악회장·매킨리원정대장>

[사진설명]구좌읍 종달리와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점에 있는 이중화산체인 두산봉. 알오름과 깎아지른 단애, 분화구 경작지 등 다양한 요소를 지닌 오름이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